

# US여자오픈 우승한 이정은 이름 뒤에 '6'이 붙은 사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하자마자 제74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한국의 이정은(23·사진) 이름 뒤에 붙은 '6(Six)'이라는 숫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정은은 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 71·6천535야드)에서 끝난 제74회 US여자오픈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은 '6' 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 라며 기분 좋게 웃었다.

이정은이 품은 제74회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 '하튼 S 샘플(Harton S. Semple trophy)' 에도 '2019JEONGEUNLEE6' 가 새겨졌다.

이정은과 '6' 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많다. 이정은은 KLPGA에서도 6번의 우승 뒤 LPGA에 진출했다. 광고로써도 이날 우승 스코어 역시 6언더파였다.

3월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정은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식스'로 불린다. 이정은 역시 '식스'로 불려달라고 할 만큼 거부감이 없다.

이정은은 "한국에서도 3라운드에 66타를 쳐서 우승한 기억이 있다. LPGA 투어 우승도 6언더파로 했다."며 "'6'는 나의 행운의 숫자이다. 그래서 내 성 뒤에 '6'가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 뒤에 '6'가 처음 붙게 된 것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등록할 때다. KLPGA에서는 동명이인 선수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는데 이정은이 맹활약하면서 어느새 '6'는 이정은의 상징과도 같아졌다. 이정은의 별명은 '핫식스'가 됐다. 팬클럽도 '러키식스'다. 이정은은 한때 자신이 입고 플레이하는 옷에 '러키 6'를 직접 디자인한 적도 있다. 플레이하는 공에는 큼지막하게 '6'를 써서 구분하기도 한다.

하튼 S 샘플 트로피는 우승자도 영구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 우승자는 진품 트로피를 약 1년간 보관한 뒤 다음 대회가 열리 전에 주최 측인 USGA에 반납해야 한다. 1만 달러를 내면 레플리카(모조품)를 가질 수 있다. 박인비도 2008년 모조품을 구입했다.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식스'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이정은은 "KLPGA 투어에 제가 6번째로 들어가서 6번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하지만 이정은은 무료로 모조품을 가질 전망이다. LPGA 관계자는 "USGA가 올해는 이정은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물가 가장 비싼 MLB 야구장은?

야구장은 단순히 야구 경기를 하고 그것을 관람하는 공간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 소리 지르며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가족, 연인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 시카고 컵스 홈구장 리글리필드

구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지갑을 열도록 한다. 입장권뿐만 아니라 음식, 기념품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16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관람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감당해야 할까?

이 매체는 리글리필드에서 써야 하는 금액은 370.12달러로 나타났다.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약 1.5배 비싼 금액이다.

리글리필드에 가기 위해선 59.49달러의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만약 차량을 이용한다면 26.16달러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 야구장에 들어가도 앞이 컴컴하다.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려면 9.50달러를 써야 한다.

5일 '스포츠조선'이 미국 경제지머니와이즈가 스포츠 비즈니스 데이터 회사의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일반 좌석 입장권 구매, 주차비 지출, 4인분의 음료 및 핫도그, 맥주 두 잔, 구단 로고가 박힌 모자 구입 소요 비용을 책정한 결과, 메이저리그 평균 관람비용은 234.38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리글리필드에 이어 보스턴 레드삭스의 펜웨이파크(354.54달러)가 뒤를 따랐고,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 미닛메이드파크(313.38달러)는 3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메이저리그 구장은 어디일까? 머니와이즈는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필드를 '가장 물가가 비싼 야구장'으로

LA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은 7위에 올랐다. 머니와이즈는 4인 가족이 자동차로 경기장을 찾아 먹거리를 즐기며 다저스 경기를 관람하려면 274.98달러 정도를 써야 한다고 전했다.

# 가방/지갑 직수입

GUCCI·PRADA

도,소매/수출 주문 판매

한정수량

\$440→\$355	\$500→\$400	\$540→\$435	\$680→\$545	\$700→\$580	\$720→\$580	\$775→\$625	\$800→\$640	\$860→\$690	\$940→\$755	
\$960→\$770	\$970→\$780	\$1110→\$890	\$1380→\$1105	\$1560→\$1250	\$1640→\$1315	\$1650→\$1320	\$1730→\$1385	\$1800→\$1440	\$1810→\$1450	\$1860→\$1490
\$1890→\$1520	\$1950→\$1560	\$1950→\$1560	\$2170→\$1740	\$2230→\$1780	\$2250→\$1800	\$2330→\$1860	\$2510→\$2010	\$2650→\$2150	\$2780→\$2225	\$2780→\$2225
\$3210→\$2570	\$500→\$400	\$1180→\$945	\$1380→\$1105	\$1640→\$1320	\$1700→\$1350	\$1950→\$1560	\$1950→\$1560	\$2220→\$1780	\$2320→\$1865	

OPMUSA 562.202.9869 / 714.315.3818 7002 Moody St. #107 La Palma, CA 90623